

봄바람에 소비 '들썩'...백화점 매출 급증

광주신세계 3월 매출 40% 증가...골프용품·아웃도어 등 매출 견인 롯데백화점 광주점 79%↑ ... '패션위크' 맞아 여성의류 161% 상승 한은 소비지출 전망 지수 두달 연속 상승...문화·통신 부문 최대 상승

이달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린 소비가 폭발하면서 광주 대형 유통매장 매출이 회복하고 있다. 해외명품이나 가구·가전에 신장세를 의존했던 기존과 달리, '새학기' '이사철' '행락철' 특수와 맞물려 모든 상품군이 선전하고 있다.

22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 주요 백화점들의 이달 들어 매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달 1~21일 (주)광주신세계 매출은 1년 전보다 4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광주점 매

출도 79.1% 급증했다.

지역 백화점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지난해 3월부터 직격탄을 맞았던 기저효과가 반영됐지만, 이달 성적은 예년에 비해서도 양호하다는 게 유통업계 설명이다.

올 3월 매출을 지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광주신세계는 10%,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5.5% 올랐다. 올 봄 소비가 코로나19 타격을 입기 전보다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소비 회복세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

형 유통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주말만 되면 광주 주요 점포는 장사진을 이루고, 인근 도로는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겪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보복 소비 심리'와 '집콕' 영향으로 해외명품과 가전·가구 매출만 나 홀로 성장했지만, 올 봄 들어서는 모든 상품군의 매출이 골고루 오르고 있다.

3월 광주신세계 매출 증감률을 상품군별로 보면 해외명품(40%)과 골프용품·의류(90%)를 포함, 지난해 맥없이 주저앉았던 여성의류(70%)와 화장품(20%)도 지난해보다 매출이 올랐다. 아웃도어(50%)와 식품(30%), 생활용품(10%) 등도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지난 주말 29개 여성의류 브랜드와 '대한민국 패션위크'를 벌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여성의류 매출이 무려 161% 올랐다.

새학기를 맞아 아동용품·의류도 82% 매출이 증가했고, 남성(87%), 해외명품(79%), 생활용품(62%), 레저·스포츠(50%) 등도 지난해는 물론 바로 전 해 매출을 회복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모처럼 활짝 웃은 데는, 이달 들어 '한 자릿수'를 지속하고 있는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한 몫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6개월 뒤 소비지출을 전망하는 2월 중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년보다 12포인트 떨어졌지만, 두 달 연속 오르는 추세다. 항목별로 보면 교양·오락·문화생활비 지출 전망지수가 전월보다 5포인트 올랐고, 교통 및 통신비 지출 전망도 5포인트 상승했다. 의류비와 외식비, 여행비도 2포인트씩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35.46 (-4.07)
↑ 코스닥	955.38 (+3.27)
↓ 금리(국고채 3년)	1.130 (-0.016)
↓ 환율(USD)	1128.40 (-2.20)



광주·전남 1만6천명 '순유출' 지난 1998년 이후 22년째 지속

전남 순유입 1위는 무안

지난해 혁신도시 시흥1이 마무리되면서 나주시가 6년 연속 지켜오던 순유입 1위 자리를 내줬다. 광주·전남 인구 순유출은 22년째 지속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22일 발표한 '2020년 호남 국내인구이동 현황 및 분석'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에는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6000명, 전남은 1만명 등 1만6000명이 빠져나갔다.

광주·전남 순유출은 지난 1998년 3750명이 순유입된 이후 22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순유출 규모는 전년(-1만2663명)보다 3174명 확대됐다.

전남 22개 시·군 국내인구이동을 비교해보니 순유입을 기록한 지역은 무안(5337명), 순천(2713명), 나주(1232명), 진도(782명), 화순(174명), 담양(53명) 등 6곳 뿐이었다. 나머지 16곳은 순유출을 나타냈고, 목포(-5255명)와 광양(-5230명), 여수(-2004명), 장성(-1017명) 등 4개 시·군은 1000명 넘는 인구가 빠져나갔다.

빛가람혁신도시가 있는 나주시는 지난 2014년 이후 22개 시·군 가운데 6년 연속 순유입 인구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무안과 순천에 밀렸다.

광주 5개 구(區)를 비교하면 재개발과 재건축 완료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동구(4595명)가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순유입이 발생했다. 동구는 지난 2019년 4371명 순유입하며 2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 서구(-4242명)와 남구(-3048명), 북구(-2871명), 광산구(-467명) 등 4개 구는 모두 순유출했다.

전체 전입자 가운데 광주는 2명 중 1명이 전남에서, 전남은 3명 중 1명이 광주에서 옮겨왔다. 시도 간 이동 사유로 '주택(이사)'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분가·이혼 등), 직업 순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신임 대표이사에 정일택 사장 선임

전대진 전 대표 상임 고문 위촉

금호타이어 신임 대표이사에 정일택(57·사진) 사장이 선임됐다.

금호타이어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일택 연구개발본부장·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된 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신임 대표이사 선임은 전대진 전 대표이사가 최근 통상임금 소송 패소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 대표는 이날 상임 고문으로 위촉됐다.

광주 출신인 정 신임 대표이사는 전남대 화학공학과의 동대학원(고분자공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1988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KTG법인장과 OE영업본부장, 품질본부장과 연구개발본부



장 등을 역임했다.

금호타이어는 5월 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 신임 대표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순조로운 경영정상화 활동을 위해 대표이사 선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피테크' 해볼까

롯데마트 광주수완점 직원들이 집에서 대파를 기를 수 있도록 한 대형 화분-베양토·식물 영양제 등 '반려식물 대파 홈 파밍' 용품 모음전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겨울 폭설과 이례적 한파로 22일 기준 광주 대파 값은 1단(1kg) 5000~6000원으로, 전년보다 2.5~4배 가까이 뛰었다. 대파를 뿌리 위로 10cm 정도 잘라 화분에 심으면 새로 자란 부분을 수확해 계속 먹을 수 있다.

(롯데쇼핑 제공)

"국민생활 안정 도모"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

4인가구 최대 1050원씩 인하 효과

한국전력이 오는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최근 급등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은 22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에 이어 kWh당 -3.0원으로 책정했다는 산정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조정이다.

당초 작년 3개월간 연료비 상승 추이를 고려할 때 2분기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실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

0.2원이지만, 정부는 1분기에 이어 -3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 겨울 이상한 파로 인한 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최대 1050원씩 인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